

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 일시         | 2022. 1. 20.(목) 15:00        | 배포 일시 | 2022. 1. 20.(목) 11:00    |
| 담당 부서<br><총괄> |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<br>구축추진단<br>총괄기획과 | 책임자   | 과 장 이민호 (044-330-1510)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  | 사무관 김태중 (fac60@korea.kr) |

**‘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지원’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  
- 디지털 시대 재정혁신 선도, 대국민 재정정보 활용도 제고 -**

□ 기획재정부(부총리 홍남기)는 1월 20일, 정부서울청사(별관)에서 관계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인사 50여 명\*을 초청하여 지난 1월 3일 첫 가동을 시작한 ‘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(dBrain)’ 개통 행사를 개최하였다.

\* 최성호 감사원 사무총장, 정종철 교육부 차관,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, 최창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, 삼성 SDS 컨소시엄 관계자 등

○ 이번 행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차세대 디브레인 소개 영상 상영, 주요기능 시연(예산편성시스템, 데이터 분석·활용 등) 및 업무 유공자 포상식\* 순으로 진행되었다.

\* 한국전자통신연구원(ETRI) 이연희 실장(인공지능 정책자문), 한국재정정보원 윤태호 차장, 삼성SDS컨소시엄 개발인력 7명 등 총 9명

□ ‘07년부터 사용해 왔던 기존의 예산회계시스템(dBrain)은 13개 재정업무 분야(예산·수입·지출·채무·성과·결산 등)에서 현장 업무처리 중심으로 사용되었으며, 재정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해 왔으나,

○ 디지털 전환기를 맞아 보다 지능화된 데이터 분석 및 과학적 정책결정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를 고려하여 19.12월 차세대시스템 개발(삼성 SDS 컨소시엄 수행)에 착수하였다.

○ 이후 총 1,557억원(유지보수비 197억원 포함)을 투입, 24월의 개발과정(요구사항 정의, 분석·설계, 개발·단위테스트, 통합테스트 등)을 거쳐 지난 1월 3일(오전 8시) 차세대 디브레인을 개통하였다.

○ 한편, 디브레인 핵심기능인 ‘예산편성지원시스템’의 경우에는 '21년 5월에 먼저 개통되어 '22년도 예산편성 업무를 지원\*하는 등 예산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.

\* '22년도 각 부처 예산요구, 정부 예산안 등 법정서류 작성, 예산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, 한글 UI프로그램 활용한 8,000여개 예산사업 자료 DB화 등

□ ‘차세대 디브레인’은 디지털 시대에 재정혁신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위해 ‘DNA, 데이터(Data)-실시간 연계(Networking)-인공지능(AI)’의 전략적 요소를 적용하였으며,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13개 재정업무 처리에 국한되었던 기존 시스템에 부담금, 용자·출연사업 등 11개\* 재정업무 관리체계를 신규로 추가하는 등 총 24개 재정 업무를 시스템화하여 재정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.

\* 부담금, 채권, 용자금·출연금 집행관리, 민간투자사업, 국세외수입 관리, 재정추계, 국가채무, 재정관리확대, 통합재정통계(GFS), 부채통계 등 새로운 영역 추가

- 또한, 예산편성 지원 및 재정의 실집행 관리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함에 따라 재정업무 처리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, 일선의 재정 집행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.

② AI 기반 데이터분석 플랫폼인 ‘코다스(KODAS: KOrea Data Analysis Service)’도 새롭게 선보여, 디브레인의 재정데이터에 사회·경제·행정 지표와 민간 데이터를 실시간 연계하고, AI기술로 분석한 결과를 정책 결정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- 이를 통해 공공부문 내에서는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이 보다 강화되며, 재정전문가 및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활용목적에 맞게 재정 정보를 쉽게 열람·분석·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.
- 그리고 전문 교육센터\* 설립·운영을 통해 데이터 분석역량 제고 교육을 지원하여 시스템 활용도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.

\* '데이터분석센터' 및 'DS(Data Scientist) 교육센터' 설립·운영 예정('22.3월, 세종시)

③ 또한, 정책당국이 한발 앞서 정책관리 상 위험요인을 미리 포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정책상황 관리시스템인 '코라스(KORAHs: KOREA Risk Assessment & Horizon Scanning)'를 구축하였다.

- 이는 재정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8,000여개 지표의 변화값에 대하여 사전에 임계치를 설정한 후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자동으로 경고를 발하게 하는 시스템이다.
- 특히, 인구·일자리·민생 등 주요 정책지표에 대해서는 정책관리를 위한 상황판을 구성하여 공공부문의 정책상황 대응에 현장감과 속도감을 더할 수 있게 된다.
- 동 시스템은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,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도 활용되어, 인구·일자리·민생 등 현장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, 위기 또는 기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.

④ 아울러, 여러 재정정보관리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여 재정정보 활용면에서 편의성을 증진하는 등 국민들과 소통하는 재정운용 기반을 마련하였다.

- 지자체(e호조), 교육청(에듀파인) 등 주요 재정정보관리 시스템과 연동하여 국제기준인 정부재정통계(GFS)에 따라 통합재정정보를 산출.

공개할 수 있어 국민의 재정정보 접근성 및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.

- 특히, 업그레이드 된 ‘열린재정’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, 직접 활용하는 사례도 많은 국고보조금, 용자·출연금 등 주요 재정사업 수혜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, 공개되는 재정정보의 종류도 대폭 확대\*하였다.

\* 디브레인 재정정보 제공 확대(132→215종, +62.9%), 오픈 API 재정데이터 공개 확대(64→125종, +95.3%)

□ 정부는 이번 차세대 디브레인 개통으로 본격화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AI 정부의 인프라를 마련하였고, ①재정업무 혁신, ②정책/재정 분석, ③정책상황 관리, ④국민과의 소통 측면에서 보다 유기적이면서도 일관된 재정운용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.

○ 미국(USA spending), 영국(OSCAR), 캐나다(FM-SC)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예산·회계 등 기본적 재정업무 처리에 중심을 두고, 관련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있다.

○ 반면, 차세대 디브레인은 재정업무 전반에서 다른 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하여 데이터 공동 활용, 업무처리 표준화,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편의성 측면에서 보다 유리하다.

- 특히, 재정데이터 분석 기능과 정책상황 관리 기능은 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- 향후 민간데이터와의 연계 분석 서비스 활성화를 통하여 AI 기반 공공데이터 시스템으로 확장·발전될 경우, 학계의 연구활동 또는 민간기업의 비즈니스 과정 등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.

□ 한편, 정부는 그 동안 차세대 디브레인 출범을 위해 6차례의 통합 테스트(‘21.6~12월), 전 부처 공무원 대상 시범운영(11.29~12.15),

실제 사용자 대상 온라인 교육(10.19~11.26, 6천여 명) 등을 거쳤다.

- 또한, 개통과 동시에 시스템 운영 상황실과 콜센터를 즉각 운영하고, 새로 개발된 AI챗봇을 가동하여 24시간·365일 상담 체제를 갖추는 등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.

□ **홍남기 경제부총리**는 이번 행사에서 “데이터 기반 재정운용 및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차세대 디브레인은 국가재정 업무에 근본적 변화와 혁신을 일으킬 게임 체인저(game changer)가 될 것”으로 평가하면서,

- “재정혁신의 가속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진화·발전시켜 국민의 삶을 좀 더 촘촘하고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<br><총괄> |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 구축<br>추진단<br>총괄기획과    | 책임자 | 과 장 이민호 (044-330-1510)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김태중 (fac60@korea.kr)    |
| <시스템>         |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 구축<br>추진단<br>시스템구축과   | 책임자 | 과 장 김진홍 (044-330-1520)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서기관 김성진 (ks92@korea.kr)     |
| <연계>          |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 구축<br>추진단<br>재정정보공개과  | 책임자 | 과 장 이철규 (044-330-1530)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신인식 (isshin72@korea.kr) |
| <데이터>         |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 구축<br>추진단<br>재정데이터제도팀 | 책임자 | 팀 장 김동학 (044-330-1540)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서기관 오정림 (jloh@korea.kr)     |

## 참고 1

## 부총리 인사말씀

< 인사말씀 >

안녕하십니까?  
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**홍남기** 입니다.

**'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' 개통식**에 오신 것을  
진심으로 환영합니다.

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감사원 사무총장님, 교육부 행안부 차관님, 그리고  
ETRI, 조세연 등 관련기관 기관장님들께 감사 드리고

아울러 **삼성 SDS 황성우 대표이사님, 컨소시엄 업체 대표님들** 등 그동안  
애써주시고 이 자리도 함께 해 주신  
민간 참석자 여러분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 
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.

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 
**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인 '차세대 디브레인(dBrain)'의**  
성공적 개통을 위해 전력투구해 주신 **삼성 SDS 컨소시엄 사업단단장님을**  
비롯한 **참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말씀을드립니다.**

< '차세대 디브레인' 구축 의의 >

**내외 귀빈 여러분!**

**코로나 팬데믹의 완전한 극복 및 정상궤도로의 복귀** 뿐만 아니라  
**포스트코로나시대 선도국가로의 도약**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**정부의**  
**과감하고 적극적인 역할**이 요구되고 있습니다.

이에 정부는 적극적 확장재정 기조하에 그동안  
**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조기집행에도 역점**을 두어왔습니다.  
그리고 이와 함께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**전략적**

**재원배분,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 재정 효율화는 물론  
재정준칙 마련 등 재정 건전성 기반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.**

저는 이러한 정부 노력에 **강력한 엔진으로 작동될 것이  
바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d-Brain** 이라고 생각합니다.

**'차세대 디브레인'은 데이터 기반 재정운용과 정책결정 지원을 통해  
국가재정 업무의 근본적 변화와 혁신을 일으킬  
게임 체인저(game changer)가 되리라 확신합니다.**

기존 '디브레인'은 재정업무의 투명성 향상과 재정업무 처리 효율성  
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 
그 기능이 예산·회계 등 **중앙정부 재정업무 처리에 국한되어**

축적된 재정 데이터를 활용한 체계적인 **재정분석·관리에 한계가 있었고  
기술노후화 등으로 성능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.**

특히 2007년 '디브레인' 출범 시점과 비교하여  
2022년 총수입과 총지출이 **2배 이상 증가\***하는 등  
**재정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**  
재정 집행속도 등 집행관리의 중요성이 더 부각됨에 따라  
**재정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필요성이 매우 컸었습니다.**

\* (총수입) '07년 250.6조→'22년 553.6조, (총지출) '07년 237.0조→'22년 607.7조

이에 정부는 **'19년 12월 시스템 업그레이드 개발에 착수하여 약  
2년간의 연구개발, 6차례 통합 테스트, 80여개 기관 대상 시범운용 등**  
정부와 민간의 핵심역량을 총결집하여  
1세대 '디브레인'을 '차세대 디브레인'으로 **전면 개편,**  
올해 **1.3일 정식 개통**하게 되었고  
오늘 그 개통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.

< '차세대 디브레인' 기대효과 >

이러한 '차세대 디브레인'은 크게 다음 3가지 측면에서 강력하게 작동되며 재정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.

첫째, 재정업무 처리 효율성이 대폭 개선되는 것입니다.

디브레인이 처리하고 있는 예산편성 등 13개 재정업무 외에 부담금, 채권 등 11개 신규업무를 추가\*하여 재정업무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.

\* 부담금, 채권, 출연금, 국세외수입, 재정추계, 국가채무, GFS, 부채통계 등 11개

또한, 수기처리 업무의 자동화 및 전산화, 중앙재정·지방재정·지방교육 등 3대 재정정보의 표준화, 시스템 처리속도 개선 등을 통해 재정업무 관리체계를 크게 혁신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.

둘째, 재정정책 결정의 신속성과 합리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됩니다.

차세대 디브레인은 ①데이터 분석(Data), ②실시간 연계(Networking), ③인공지능(AI) 등에 기반한 소위 D.N.A 기반 정책결정 지원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.

이를 위해 기존 '디브레인'에 축적된 예·결산 등 약 2,400개 중앙재정 지표에 800개가 넘는 지자체·민간 시스템의 실시간 연계를 통해 약 5,600개 지방사회·경제·행정지표 및 민간데이터를 추가하여 총 8,000개 지표에 이르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.

아울러, AI 기반 사용자 맞춤형 데이터 분석 인프라인 '코다스(KODAS, KOREA Data Analysis Service)'를 구축하여 사용자가 필요시 언제든지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.

또한 데이터 기반 정책상황 관리시스템인 '코라스(KORAHNS\*)'를 통해

**8,000여개의 데이터 변동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 
위험요인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**

\* KORAHs : KOREA Risk Assessment & Horizon Scanning

**인구, 일자리, 민생, 대외변동성 등 핵심지표의 실시간 정책상황 관리가  
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.**

마지막으로

셋째, **국민들의 재정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강화됩니다.**

국가재정 전체 모습을 보다 쉽고, 투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 
**중앙재정, 지방재정, 지방교육, 공공기관 등을 포괄하여  
'통합재정정보'를 국제기준(GFS\*)에 따라 산출하여 제공 합니다.**

\* GFS :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

재정정보 공개범위는 기존 **132종에서 215종으로 확대하고,  
재정정보 시각화, 다년도 조회범위 확대, 홈페이지 접근 편의성 제고 등  
대국민 재정정보 제공방식도 개선하였습니다.**

\* 다년도 조회 범위 : (디브레인) 단년도 조회 → (차세대 디브레인) '07 ~ 현재

아울러 수혜정보 제공범위를 기존 국가보조금에서  
**중앙정부 용자·출연금까지 확대하여 통합 제공할 계획입니다.**

< 마무리 말씀 >

내외 귀빈 여러분!

'디지털시대 원유'라고 일컬어지는 '데이터'는  
혁신을 유도하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귀한 자원입니다.

'차세대 디브레인'은

정부의 재정업무 과정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**재정 데이터**를 효율적  
이고 신속하게 수집·처리·분석·활용하여  
**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, 보다 나은 의사결정 그리고  
보다 개선된 대국민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**로  
세계 10위 경제대국, 디지털 강국\* 으로서

세계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앞서가는 **혁신적 시도**입니다.

\* '19년 OECD 디지털정부 평가 및 '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 등

차세대 디브레인 구축으로

**재정역할, 재정효율, 그리고 재정혁신을 한층 더 가속화할**

**중요한 티핑포인트**(Tipping Point)를 마련하였으나

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.

앞으로 재정규모는 더 커질 것입니다.

재정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또한 더 커질 것입니다

재정환경 및 변화에 부딪히면서

재정시스템의 끊임없는 혁신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

이는 **우리 모두의 과제**입니다

'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길을 개척한다'는 **응변창신**(應變創新)의 자세로

**'차세대 디브레인'의 세대진화가 거듭되기를 기대합니다**

정부가, 재정당국이 솔선하겠습니다

여러분 모두의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합니다.

감사합니다.

## 참고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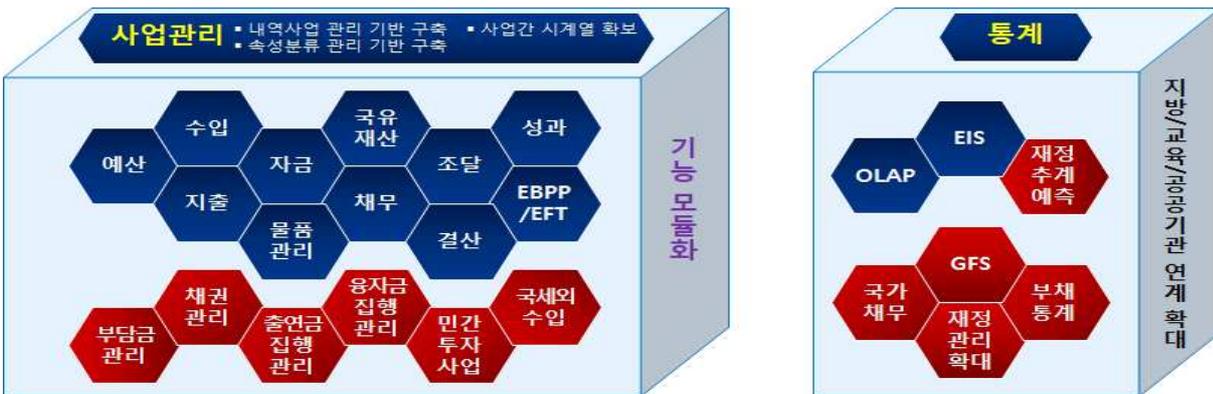
##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사업 개요

### □ 사업개요

- 총사업비: 1,557억원 ('23~'27년 유지보수비 197억 포함)
- 사업기간: '19.12월 ~ '22.3월(28개월, 안정화기간 3개월 포함)
- 추진경과
  - ① '13.12월, BPR/ASP 수립
  - ② '15. 7월, 예비타당성 조사
  - ③ '18. 4월, 상세 컨설팅(ISMP) 수립
  - ④ '19. 7월,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출범
  - ⑤ '19. 9월~11월, 입찰 공고·재공고(삼성SDS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)
  - ⑥ '19.12.20. 계약 체결

### □ (시스템 구축) 24개 재정업무의 전면 재구축을 통한 데이터 기반 재정운용 및 정책결정 지원 시스템 구현

(기준: 예산·수입, 조달 등 13개 → 추가: 부담금·채권, GFS 등 11개)



### □ (일정) '22.1.3일 전면 오픈 ('21.5.20, 예산편성 지원시스템 先 오픈)



### 참고 3

### 재정관리 혁신 10대 개선사항

| 전략                        | 과제명                   | 개선 내용(전후 비교)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
| 업무관리 확대를<br>통한<br>사각지대 해소 | 1. 국세외수입<br>납부편의성 제고  | 전            | 고지서(은행창구) 납부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후            | → 국세외수입 납부포털(PC, 모바일) 구축 및 전자납부번호(은행, 온라인) 납부 등 납부방식 다양화로 대국민 납부편의성 향상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 부담금 관리 개선          | 전            | 수작업 관리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후            | → 부담금 징수실적 연계(일별)*를 통한 실수납액 기반 실적관리, 부담금 운용 종합계획서 및 종합보고서 작성 지원<br>* 자치단체 : 표준세외수입시스템, 서울시세외수입시스템(광역10개 기초13개 부담금)<br>** 공공기관 :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12개 시스템(11개 부담금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. 출연사업 관리 개선         | 전            | 출연사업 연구개발비 수작업 집계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후            | →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시스템(RCMS, Ezbaro) 연계를 통해 집행실적 현황 및 교부 관리 등 집행 실적 관리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. 용자사업 관리 개선         | 전            | 용자사업 실집행 미집계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후            | → 용자사업 전 과정* 전산화 및 용자 운영기관 시스템 연계**로 실집행 실적 관리<br>* 사업관리→선정관리→집행관리→사후관리<br>** 공무원연금기금, 주택도시기금 등 8개 기금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. 국유재산<br>상시 관리체계 구축 | 전            | 디브레인과 타기관(대법원, 국토부, 특허청 등) 관리정보 불일치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후            | → 관계 기관 정보 연계*를 통한 국유재산대장 정보 일치로 국가관리 데이터 신뢰성 향상<br>* 대법원(등기정보), 국토부(토지·건축물대장), 특허청·저작권위원회·국립중자원(무체재산정보)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6. <b>민간투자사업</b><br>관리 개선        | 전 | 민간투자사업 정보시스템(Infrainfo, KDI운영)을 제한된 사용자만 활용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후 | → Infrainfo시스템 연계를 통한 민간투자사업 정보* 제공으로 업무 신속성 및 효율성 향상<br>* 사업 기본정보, 출자자 상세정보, 사업 추진정보 및 일정 상세정보 등   |
| 사용자 중심의<br>업무편의성 향상      | 7. <b>관서운영경비 교부반납</b><br>납부절차 개선 | 전 | 은행방문 반납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후 | → 전자자금이체를 통한 반납으로 출납공무원 업무편의성 향상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8. <b>재정업무 자문(챗봇)</b><br>서비스     | 전 | 콜센터 문의·응답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후 | → 24시간-365일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상담(챗봇)* 및 지능형 검색** 서비스 제공 등으로 업무 편의성 향상<br>* (구)디브레인 기반 대화지식(FAQ, 게시판 Q&A, 상담이력)을 정제하여 인공지능 학습<br>** 법령, 지침, 매뉴얼 등 재정업무 관련 정보 |
| 인프라 강화를 통한<br>안정적 시스템 운영 | 9. <b>국산DB 전환</b>                | 전 | 외산 DBMS 도입, 관리비용 증가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후 | → 대국민서비스(열린재정, e나라재산, 국제외수입 포털)에 국산 DBMS 도입으로 성능안정성 확보 및 비용절감*<br>* 유지보수비용 10% 이상 절감 효과 (외산: 도입가격의 22% vs 국산: 10% 이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. <b>수출을 고려한 모듈화</b>           | 전 | 1개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기능 확장, SW재사용, 유지관리, 수출 곤란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후 | → 국가재정의 8개 핵심기능*을 모듈화, 필요한 기능만 분리구축 가능<br>* 기준정보, 사업관리, 예산관리, 자금관리, 수입·채권, 지출·채무, 자산, 회계·결산   |

## 참고 4

## 주요기능별: ①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(KODAS)

- (개요) 사회·경제·행정지표 및 민간데이터 연계 → 공무원, 연구자, 일반 국민 등을 위한 데이터 활용·분석 기반(플랫폼) 제공
  - \* 재정분야 자료에만 활용이 국한되었던 기존 디브레인에 사회·경제·행정지표 및 민간데이터를 연계하여 보다 과학적인 분석 및 정책결정 지원



## □ 주요 내용

- ① (범정부 데이터 플랫폼) 재정데이터만 있던 기존 디브레인에 사회·경제 지표, 행정·민간데이터 등\*을 실시간 연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
  - \* 사회경제지표(R&D, SOC, 농림·수산 등 12대 분야), 행정데이터(공공데이터 포털, 부처별 공개데이터 등), 민간데이터(카드社, 이동통신社 등)
- ② (재정데이터 분석센터) 수집된 재정·거시경제·행정·사회 데이터 분석·활용을 위하여 AI 기반 사용자별 맞춤형\* 분석환경 구축
  - \* (내부) 정책결정 실무자(공무원) 대상 온라인 분석 프리존 구축 ('22.1월 시범개통)  
(외부) 전문가·국민 대상 오프라인 분석센터 세종에 구축 ('22.3월 개설)
- ③ (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) '재정데이터분석'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\* 및 시범교육 시행 완료 → '22년부터 정규과정으로 확대 및 교육센터 세종에 설치 예정('22.3월)
  - \* 온라인 기초(6h), 입문과정(FDA, 16h), 심화학습(FDS, 35h), 총 57시간

## 참고 5

## 주요기능별 ②데이터 기반 정책상황관리시스템(KORAHS)

- (개요) 주요 정책지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책상황 파악·전망 등을 통한 선제적 정책관리시스템



## □ 주요 내용

- ① 8천여 개 정책지표의 변동상황 모니터링, 지표별 임계치 설정을 통한 조기경보체계 구축

※ 국정상황의 통합적 자동 모니터링 및 위기징후의 신속한 파악을 통해 정책환경에 선제적 대응 가능

- ② 인구, 일자리, 민생지표, 대외변동성 4개 핵심지표\*의 실시간 정책상황 대시보드 구축

\* 인구(구조와 변화 등 37개지표), 일자리(현황, 창출, 질 등 21개지표), 민생(경기, 일자리, 주거, 안전 등 30개지표), 대외변동성(국제금융, 수출 등 24개지표) 데이터 실시간 연계 및 시각화

- ③ GDP, 국고잔액 등 정책상황을 AI 기반으로 진단·전망

\* GDP : 계량경제모델인 Nowcasting과 인공지능(AI) 딥러닝 방식으로 추계  
국고잔액 : 수입(월단위) 및 지출(일단위)을 인공지능(AI) 방식으로 추계

## 참고 6

## 주요기능별: ③ 열린재정 개편

### □ 열린재정 개편 방향



### □ 서비스 개편 주요내용(달라진 점)

| 서비스                    | 주요 내용              | 달라진 점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|
| 사용자 중심의 재정정보 공개 확대     | 3대 국가재정을 통합한 통계 제공 | 중앙재정, 지방재정, 지방교육재정을 GFS기준의 통합재정통계로 제공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공개 재정정보 확대 제공      | 표준화된 방식의 공개플랫폼 구축 및 이를 통한 재정정보 제공 확대 (기존 132종 → 차세대 215종)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성과정보, 민간투자 사업 등 공개 | 성과정보, 민간투자사업 등 재정사업의 국민관심정보 공개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국민 접근을 고려한 정보제공 방식 개선 | 재정정보 제공방식 개선       | 재정분석통계 기능 강화와 복합통계 대상 확대로 통계분석 효율성 증대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재정통계 시계열 서비스 확대    | 통계 데이터 DB화 구축 및 재정통계 시계열 서비스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이용자 편의성 증대         | 정보분류 체계 개선 및 재정정보 이용 편의성 증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한번에 확인 가능한 맞춤형 수혜정보 제공 | 한곳에서 수혜정보 일괄 검색 가능 | 국고보조금, 출연금/용자금 수혜정보를 한 곳에서 일괄 검색 가능 제공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수혜와 관련된 재정 정보 추가   | 재정수혜사업 내용, 예산, 문의처 등 수혜자 중심의 유용한 수혜 정보 제공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누구나 찾기 쉬운 검색서비스 제공 | 간편·생애주기·분야·테마·복합 검색 등 다양한 검색 서비스 제공                       |

## 참고 7

### 주요기능별: ④ 예산편성지원 시스템 개편

① **[개요]** 예산요구 및 편성 등 예산업무 전 과정\*을 스마트하게 디지털로 전환하여 업무부담 경감 및 업무효율성 제고

\* 예산요구 → 정부안 마련 → 국회확정 → 예산배정 → [다음년도] 중기계획 작성

▷ **[기존] 숫자 중심 → [변경] 숫자 + 콘텐츠 모두 디지털 전환**



② **[한글UI 적용]** 최초로 한글프로그램\*과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시스템 사용자들이 문서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

\* 한글 문서 프로그램을 웹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글문서 솔루션(웹 한글기안기)

- 「한글프로그램」의 문서작성 및 편집 기능을 사실상 그대로 사용하면서, 디브레인의 재정자료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

③ **[예산자동배정]** 과거 5개년 배정계획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업 성격 및 지출형태에 맞는 최적의 분기별 배정계획 기준 마련

- 쏠 부처 공무원이 촉박한 시간 내에 작성해야하는 예산배정계획을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수립